

은 世上을 휩쓰는

시커먼 그림자

그 이름은 “膨脹”!

그 種族은 許多히 많아!

첫째 人口膨脹!

그에 따르는 都市膨脹(擴張)!

軍備膨脹(擴張)!

交通膨脹(輻輳)!

貧窮膨脹!

疾病膨脹!

等等



여기서 우리는 머언 앞날을 뚜렷이 내다보는 地球上의 指導者가 아쉬어! 人口膨脹을 도마에 놓고 서투른 食칼로 激論을 한다. 對策은 產兒制限(調節)이라는 識題로! 國際間的 政治人들!

傳統과 倫理를 旗幟로 奮怒하는 宗教人들!

自我確信에 가득찬 學者들!

“갈릴레오”가 地動說을 提唱하여 迫害를 받았어도 이제는 嚴然한 事實과 같은 뚜렷한 眞理와 같이 人口膨脹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참된 學說을 듣고 싶어 乃終에 立證이 되는 眞實한 解決로서의 學說을!

至今의 경우로는 저들 激論의 演士들의 그 食칼이 두려워! 危태로워! 모든 種類的 膨脹이라도 그中 疾病膨脹만은 抑制했단 말이야! 現代醫學이란 칼이! 안그래! 여보이소!

× ×

먼데 얘기는 제쳐놓고서
이나라! 배달겨레들의 大韓民國
서울 바닥을 내려다 보면서…….
人間膨脹은 自然의 攝理라고 하자.

都市膨脹은 自然의 現象이라고 하자.

最大幅의 道路라도

강낭콩 명석에 깔린듯 온갖 種類的 車輛으로
꽂 채워지고

길이란 名色붙은 골목엔 온 長安사람들 쏟아져
나온듯 끊임없는 장날마냥 繁雜을 넘어서 窒息의
도가니!

× ×

當場의 이 時點에서도 阿鼻叫喚의 極限點임을!
허진 곳곳의 길널뭉엔 매늦은 對策이나마 立體交叉를
爲한 收拾工事로서 巨大한 두더지作業을 하느라
비지맘을 흘리는 데 한견에선 이만 저만한 不便이
아니냐?고 호통이 대단해! 無理도 아니겠지만?
그럼 어떻게 랑기요? “衣冠도포” 양반 거름으로
천천히 걸어야 할까?

왜 남의 말만 하오? 님네들 建築士! 일거리가
눈앞에 비치면 쇠뿔다귀 만난 개들마냥 으르렁
으르렁 餓鬼다툼! 사나운 힘과 날카로운 잇빨로
내가 뺏아야 전된다는 오늘의 이 宿命을!

다른 하나는! 늦도록 팔리지 않는 生鮮장사꾼들이 찬거리 사러나온 한 아낙네 앞에 물려서 卑屈과 아양?으로 거품을 뿜으며 來日이 안타까워 終乃는 내살짜기는 줄 모르고 焦燥와 自抛의 競合으로 헐 값으로 팔아 넘기듯 우리 建築士들은 내 남할것 없이 거이 모두가 建築士業務報酬基準을 여지없이 짓밟아 가며 죽도록 애써서 일을 해서는 “죽 우워 개준다”는 格言이 어색케 모든 權益을 拋棄하였으며 德性和 志操의 破綻으로 建築士의 品位는 진창에 묻힌 現實을! 누구를 怨望하고 닷할까?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國民들이 부러워하며 推仰한다는 “建築士”職을 우리들이 흔히 말하듯 저어 福德房 營業만큼도 못한 것은 무슨 緣由일까? 知性的 간직을 自負하는 우리 建築士들이 果然 저들 福德房 營爲人(去概가 老年層)들 만큼의 規律遵守 및 協和精神이 없대서야 反省을 提唱하기에 앞서 요즘 흔히들 말하는 “世代交替”라는 말이 無色해 진다.

우리 建築士業務 分野의 이 世風이 그대로 繼續되는 境遇 우리들의 마지막 갈곳은 정녕 어디냐? 내 남들이 至今의 現實을 痛嘆하여 悲憤慷慨로서 批評은 하면서도 말이다!

저어 現代醫學이 많은 種類의 疾病을 抑制하고 오히려 人類의 健康增進에 貢獻했듯이 일어나 보자! 뭉쳐 보자! 애써 배운 建築技術을! 힘들어 獲得한 建築士資格을! 다같이 一生동안 所重히 아끼고 곳곳이 지키어 이 나라에서 그 榮譽가 으뜸가는 職業으로 品位와 幸福이 最高로 알찬 所有者들이 되게 하는 길로! 정말 찾을 수 없을가? 이러한 길은……. 화이 날?

우리 建築士들은 다같이 몸에 밴 建築分野 惡속에서의 그릇된 現實追求의 모든 惰性を 박차고 무딘 同志愛를 發現하여 진창 속에서의 我執脫皮에 各自 채찍질 해서 寸前의 私를 默殺하고 크게 뜬 눈앞의 넓은 廣場을 大同開拓하는 心眼目으로서 커다란 度量과 一齊한 奮發과 꾸준한 努力을 傾注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明朝하고 富

裕한 幸福스러운 建築士의 살길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建築士界의 現行 모든 非違가 차츰 없어져 建築法을 爲始한 여러 關係法에 規制한 合法的 正當建築이 늘어남과 함께 建築士들이 接觸하는 關係當局間 官民이 서로 和氣에 넘치며 相面談笑할 수 있는 風土를 이루어 現在와 같이 一部輿論의 批判을 받는 建築相을 바로 잡아서 交通, 衛生, 消防, 風紀等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建築法에서 여러 條項을 두어 좋은 目的을 이루고져 하는 指針에 符合되는 眞情 明朗한 都市建設을 造成할 수 있을 것이다.

這般 本協會의 建築士業務報酬基準 作成을 事業部 料率對策委員會에서 長期間에 걸쳐 作成한 것을 銳意 審議 檢討하여 그 最後決定案을 建設部長官 앞으로 認准申請을 提出하였든 바 當局에서도 慎重 細密한 審査끝에 一部 修正되어 지난 7月 5日字로 認可되어 이제 그 實施를 보게된 마당에서 會員 여러분께서는 이 時點을 契기로 國家에서 保障하여 준 이 權益을 確固히 지키는 決心으로서 同 報酬基準에 表示된 數字는 料率最低線인즉 다같이 이를 악물고 小我를 버리고 大我를 取하는 氣魄으로 이 最低線을 絶對로 固守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以上の 報酬는 各自의 技術과 品位로서 力量에 比例하여 더욱 많이 받을수 있는 方法을 發揮하시기를 빌면서 建築의 正當한 發展은 우리 建築士들의 完全한 權益 確保만이 成就할 수 있음을 自覺하고 우리 會員 一同의 一糸不亂의 大進軍으로서 建築에 關係되는 모든 惡弊 膨脹을 抑制하며 그 機首를 돌려 建築 分野의 밝은 面으로 膨脹을 誘導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目的이 이루어 질때 비로서 우리 建築士들이 現在 當하고 있는 헤어날 수 없는 混濁속에서 벗어나며 建築士로선 살아나가기 힘든다는 切迫에서 풀려날 것을 다짐하면서 “新建築士”誌 創刊 編輯에 즈음한 述懷를 마친다.

(協會 理事)